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D-100일(지난달 30일)을 기념해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1일 열린 'F1 전국 자전거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서킷을 출발하고 있다.

/영암=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올 대회 박진감 최고... 벌써부터 설렌다

F1 코리아그랑프리 D-100

영암 경주장서 모형자동차대회 등 성공기원 행사
가족과 함께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축제의 장 펼쳐

세계인의 심장을 울리게 될 'F1 코리아그랑프리(10월 12일~14일)'가 'D-100일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합찬 시동을 걸었다. F1 코리아그랑프리에는 자동차경주의 볼모지나 다름없었던 국내에 '지상의 전투기' F1 머신의 굉음과 스피드를 선사하며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D-100일을 맞아 지난 달 30일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비가 내린 가운데 열린 기념행사에는 5000여명이 몰려 F1 대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F1서킷 달리기대회에 참가한 마라톤 동호회원 등 2000여명은 비속에서도 F1머신이 달리는 서킷 5.615km를 직접 달려보는 독특한 체험을 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F1서킷 달리기 대회에 참가한 박운욱씨는 "평소 이색 마라톤대

회에 많이 참가해 봤지만 F1머신이 달리는 F1서킷을 뿔 때가 가장 좋았다"면서 "F1 경주장을 활용해 주변지역을 정식 마라톤 코스로 개발하면 더욱 인기를 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전국 스피드 자전거대회와 F1 모형자동차대회, 어린이 사생대회도 함께 진행했다.

전국 스피드 자전거대회는 '녹색성장의 아이론'인 자전거 인구 저변 확대 및 경주를 통한 가족 화합의 장으로 펼쳐졌다. 전국에서 2000여명의 동호인들이 참여해 내구레이스 드래그레이스, 2013년 신제품 자전거 데모바이크 체험행사 등이 열렸다.

스피드와 함께 지구력을 겨루는 내구레이스 경기에서는 제한시간인 2시간 동안 5.615km의 경주장 14바퀴를 가장 빠르게 달린 임정우 선수가 사이클 부문에서, 13바퀴를 순회한 드렉란(derek laan) 선수가 MTB부문에서 각각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단거리 경주인 드래그레이스에서는 800m 구간을 1분 2초로 돌파한 김동원 선수가 최고 스피드왕의 영예를 누렸다.

51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제천 자전거연합회는 최다 참가동호회 상을, 목포 유달MTB의 박천진씨는 70세의 나이로 최고령 참가자상을 수상했다.

F1 머신 모형을 직접 제작해 레일 위에서 속도를 측정해 순위를 가리는 F1 모형자동차대회는 가족단위로 참여하여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우승을 차지한 김성중(목포 청호중 3)군은 "평소 F1을 좋아해서 가족과 함께 참가하였는데 우승까지 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어린이 사생대회에는 광주·전남 유치원과 초등학교생 300여명이 참여, 크레파스와 수채화 부문에서 F1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다.

이밖에도 참가자들과 관람객을 위해 모터바이크 모기, 자동차 드리프트 쇼, 승마체험, 다양한 경품 행사 등이 진행돼 가족들이 함께 보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F1조직위원회 박종문 사무총장은 "이번 행사는 가족이 직접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위주로 마련했다"면서 "이번 F1 대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라운드마다 우승자 달라 한국대회가 분수령 될 것

올해 F1은 지난해 챔피언 세바스찬 페텔의 독주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혼전의 연속이다.

매 라운드마다 우승자가 바뀌면서 최종 우승자를 짐치기 어려워졌고, 당달 아 팬들은 더욱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해 15라운드 일본 대회에서 이미 F1 월드챔피언십 우승자가 세바스찬 페텔로 결정되면서 16라운드 한국대회는 김이 빠졌다.

하지만 올해는 혼전을 거듭하면서 한국 대회에서 우승자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져 더욱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코리아그랑프리가 열리는 영암 F1경주장에서 최종 우승자가 결정될 것인지, 벌써부터 팬

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8라운드 스페인 대회를 마친 F1은 현재 페르난도 알론소(페라리)가 종합 순위 1위를 지키고 있다. 알론소는 지난해 24일 스페인 발렌시아 경주장(서킷)에서 열린 2012 F1 8라운드 유럽대회에서 1시간44분16초649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 경기에서도 이번이 속출했다. 예선 1위를 차지했던 세바스찬 베텔(레드불)이 머신(경주차) 고장으로 중도 하차(리타이어)한데다 선두권 경쟁을 벌이던 로망 그로장(로터스)마저 40바퀴째서 경주를 중단했다.

알론소는 이 대회 우승으로 총 111점을 기록, 종합 순위 1위로 올라섰다. 2위는 91점의 마크 웨버로, 이 대회에서 우승자가 결정될 것인지, 벌써부터 팬

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88점)를 앞질렀다. 4위는 머신 고장으로 중도 하차한 베텔(85점)이다. 매라운드마다 1위(25점), 2위(18점), 3위(15점)가 뒤바뀌면 언제라도 종합 순위가 요동치기 때문에 더욱 재미를 더해 주고 있다.

또 대회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각 팀들 간 머신 성능의 격차도 크게 줄어들며 몇 차례 대회에서는 상위 8개 팀의 한바퀴 도는 시간(랩 타인) 차이가 1초 이내로 형성되고 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승자가 결정될 수 있을 정도로 극적인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2012 F1대회에는 20개 대회(라운드)로 펼쳐지며, F1 한국대회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영암 F1경주장에서 열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F1 그랑프리 순위

순위	드라이버	팀	점수
1	페르난도 알론소	페라리	111
2	마크 웨버	레드불 레이싱	91
3	루이스 해밀턴	맥라렌	88
4	세바스찬 베텔	레드불 레이싱	85
5	니코 로즈버그	메르세데스	75
6	키미 라이코넨	로터스	73
7	로망 그로장	로터스	53
8	젠슨 버튼	맥라렌	49
9	세르지오 페레스	자우버	39
10	파스토르 말도나도	윌리엄스	29

Korea Be Inspired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강진청자축제 대한민국 대표축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에 2,000여개의 축제 중 2개를 선정하여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관광공사, 해외 홍보와 축제 간담회 등을 지원합니다.

청자 소성 온도 1300°C를 상정하는 강진군 브랜드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대표축제

제 40회
강진청자축제

The 40th Gangjin Celadon Festival

2012. 7. 28(토) - 8. 5(일)
전라남도 강진군 고려청자요지 일원

주최 강진군
주관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모공사 보혜암주지회사 보일정원인 권주순영

강진청자축제는 강진군이 개최하는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2012.7.27~8.2)와 연계 개최됩니다. 두축제가 진행되는 서울버스기 운행됩니다. 서로 다른 지자체에서 연계하여 개최하는 것은 대한민국 축제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http://gangjinfes.or.kr
1688-1305

물과 숲 休

2012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장흥군

AQUA Festival

강과 산, 바다와 호수가 어우러진 청정 명! 정남진 정흥!

2012. 7. 27(금) ~ 8. 2(목) / 7일간
장흥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주관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추진위원회
후원 전라남도 한국수자원공사
문의 장흥군 문화관광과 061-860-0380
네비게이션 검색 [정남진물축제] [장흥군청]
www.jhwater.kr

오래된 전통 '물싸움'
편백숲 우드랜드
만남의 나무 맺음 체험
해방의 물놀이

수상자전거 부문과 함께하는 물고기잡기 체험
수상자전거 매달리

Korea Be Inspired